

내달 개관 국립광주과학관 미리 가보니



미래를 향해 우주로 도약하는 우주선 모양의 국립광주과학관이 다음달 초 개관을 앞두고 있다. 광주과학관은 빛과예술관·천체투영관 등 36개 주제 151개 전시품이 설치돼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어린이 전용 천체투영관.



어린이관의 호기심 놀이터.

과학관 중앙홀에 자리잡은 '빛고을탑'

선사부터 빛의 시대까지 체험

광주과학관에 들어서면 중앙홀에 '빛고을탑'이 자리하고 있다. 광주과학관의 상징조형물로, 빛·예술·과학을 담았다.

빛은 현대과학을 대표하는 중요 요소로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며, 예술성을 결정하는 근본이다. 빛과 예술을 테마로 한 광주과학관은 빛고를 광주와 예술, 빛에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상화했다.

빛고을탑에서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무지개는 모든 '가시적 빛'을, 정원 속의 식물들은 생명을 부양하는 '생명의 빛'을, 움직이는 모빌과 회전하는 탑은 '에너지 빛'을 의미한다.

주탑의 회전축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인간 사이의 과학기술 변화와 조화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다.

맨 아래 기단부분의 주형은 광주 무등산의 서석대·입석대를 모델로 한 지질시대를 의미하고, 1층 화강석은 석기시대, 2층 구리 구조물은 청동기, 3층 녹스 철물 구조물은 철기시대를 상징한다. 4층 기계바퀴는 기계화와 산업화 시대, 5층 회색바탕의 필름 모형은 아날로그시대를, 6층 반도체 모형은 디지털시대를 표현하고 있다. 7층 꼭대기 부분은 프리즘을 보여주는 빛의 시대다.

이 탑은 빛의 성질을 패턴화한 것이다. 분수와 조형물을 통해 빛 속에 숨겨있는 무지개를 나타내고,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는 빛의 물리적 현상을 체험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직접 보고 만지고, 놀이로 느끼는 '과학 소통의 장'

편안하게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는 직경 12m 돔스크린 '천체 투영관'

광주의 상징 빛과 예술 주제로 과학과의 관계 엮은 '빛과 예술관'

유풍한 과학놀이 공간의 교육 놀이터 '어린이관'

36개 주제·151개 전시품 최고 시설로 관람객 맞을 준비중

"완전 곳! 재미있어요. 강추" (경양초) "다양한 체험과 영상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증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문흥중) 국립광주과학관 개관에 앞서 시범운영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이다. 화려한 빛과 짜릿한 4차원 영상, 환상의 탐험, 유풍한 과학놀이, 신기한 생활 속 과학... 한국 최초 우주인을 배출한 과학도시 '광주의 꿈'을 만들어 갈 명소다.

◇전시물 81% 체험형=4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첨단지구 내 국립광주과학관은 막바지 점검 중이었다. 다음 달 초 개관을 목표로 체크에 체크를 거듭했다.

광주과학관은 광주 첨단지구 내 9만8248㎡ 부지에 844억원(국비 591억원, 광주시비 253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7325㎡, 전시면적 7209㎡ 규모로 건립됐다. 지난 2007년 착공해 6년 만인 지난해 11월 완공했다.

이 곳엔 빛과예술관, 생활과미래관, 어린이관, 기획전시실, 소리빛, 4D영상관, 천체투영관, 빛고을탑 등 36개 주제·151개 전시품이 설치됐다.

규모 면에서는 국립 과학관과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지만, 전시시설만큼은 전국 최고다.

광주과학관의 자랑은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전시물이 전체의 81%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전국 국립 과학관 4곳 중 가장 높다.

광주과학관을 관람하는 데는 4시간 정도 소요된다. 여름방학 기간인 7월말이나 8월초에 임시 개관할 예정이다. 광주과학관은 관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퇴직교사·가정주부 등으로 구성된 도슨트(과학해설사)를 운용할 계획이다.

김현 홍보담당은 "광주과학관은 과학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놀이와 교육을 융합한 체험형 공간"이라며 "과학적 탐구심과 창의력이 잠재된 미래 인재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교육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체투영관서 별자리 체험=광주과학관은 위에서부터 첨단과학이 묻어난다. 미래를 향해 우주로 도약하는 유선형의 우주선 모형으로 '광주의 꿈'을 형상화했다.

과학관 안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빛고을탑'이 반긴다. 탑은 선사시대부터 빛의 시대까지 변천사를 보여준다.

빛고을탑 오른쪽엔 4D(4차원)영상관과 천체투영관, 어린이관이 배치됐고, 왼쪽엔 기획전시실이 마련됐다.

4D영상관은 3D영상에 물리적 움직임을 가미한 4차원 영상관으로 55석 규모다. 현란한 레이저쇼에 이어 4D영화 '워리어 오브 더 다운'을 봤다. 영화는 불의 검은 찾아 지하의 신 하데스와 맞서는 영웅의 스펙타클한 모험을 그린 것으로 쏟아지는 유성우, 타이탄의 공격 장면 등이 실감난다.

옆에는 천체투영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은 직경 12m 돔스크린과 디지털 투영시스템이 갖춰진 첨단시설이다. 101명이 좌석에 편하게 누워 하늘의 별을 보듯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만날 수 있다.

어린이관은 유풍한 과학놀이 공간이다. 생활 속 과학과 기술탐구를 위한 교육 놀이터다. 자연과 내 몸속 탐험, 자동차 고치기, 만화경세상, 머리만 보이는 마술상자, 포토존 등 놀이와 체험이 함께하는 에듀테인먼트 공간이다.

◇빛과 예술, 과학을 만나면=2층은 크게 빛과예술관, 생활과미래관으로 구성됐다. 빛과예술관에는 광주의 상징인 빛과 예술을 주제

로, 과학과의 관계를 설명한 광주과학관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곳이다.

관람객들 맞추기, LED식물 키우기, 나만의 빛 만들기 등을 통해 빛이 무엇인지 기초과학적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매트릭스'속 주인공 되어보기'존에는 자신이 영화 주인공이 돼 공중 부양하는 명장면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다.

'소리빛'은 관객의 소리가 빛으로 표현되고 다시 빛이 소리로 표현되는 공감각적 과정을 체험하는 곳으로, 미디어아티스트 전병삼 작가의 작품이다.

생활과미래관은 집과 학교 등 일상에서 자주 쓰는 물건들이 어떤 과학 원리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곳이다. 집에 들어서며 여는 도어락의 원리, 좌식변기의 물 내려가는 원리 등 우리집에 숨어있는 과학원리를 발견하는 공간이다.

놀이기구·스포츠폰은 놀이감이 즐비한 곳이다.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 작동 원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가상현실을 통해 스노보드와 윈드서핑, 행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다.

해양조에 설치된 SOS(Science On a Sphere)시스템은 광주과학관의 최고가 시설물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이 개발한 전시물로 우리나라에는 과학관과 광주에만 있다. 대재앙을 부른 쓰나미 등 해양 변화, 태풍과 구름의 이동 모습 등 지구환경 자료를 이미지파일로 변환해 지름 2m의 구(球) 표면에 3D 동영상으로 투영해 보여준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교육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과학관 함께할 가족 찾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 과학교육과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할 직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전시연구·기획·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을 연구직과 경영·예산·인사 등을 담당하는 행정직이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gnsm.go.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960-6122~7.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Joy!!'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ategories like 'The PAN', '고향식당', '선한방병원', '푸른정', '커피홀릭', '신신예술의집', '광주화랑', '동양철학원', 'J타워분양사무실', 'Y타워분양사무실', '생생숯불갈비', '명성토탈인쇄', '제일반점', '남영철학원', '은빛디자인', '리바트광주전시장', '풍년식당', '(주)렛츠고허니문', '한국산한약건강재담', '국수나무(롯데중앙점)', '추추추어탕', '파레스호텔', '카톡PC방', '아시시농성점', '사랑의내과의원', and '(주)아호익스프레스'.